

‘작은 철학’의 짧은 삶과

‘큰 철학’의 오래된 삶:

파르마콘으로서 플라톤의 다섯 가지 역설들

김 선 희*

주제분류 삶 철학, 철학 프락시스, 현대철학

주요어 철학 프락시스, 삶 철학, 파르마콘, 큰 철학, 작은 철학, 플라톤의 역설들

요약문

오늘날 철학 자신이 지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철학 스스로에 의한 철학의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이는 오늘날 철학을 통한 치료와 상담을 논함에 있어서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상담이나 치료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철학 자체가 지니고 있는 삶과의 연관성에 대한 검토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저지독한 모던과 포스트모던 철학 사이의 철학적 고뇌와 실천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삶의 병리적 현상들의 가속화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새삼스럽게 실천적으로(practically) ‘과연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다시 던져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실천적 물음을 통해 철학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해오던 철학을 삶(das Leben)의 관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니체를 기점으로 푸코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조명되었으며, 최근 철학 상담 영역에 있어서는 철학을 이론(Theoria) 이외에 프락시스(Praxis)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독일의 철학 실천가인 아헨바흐(Gerd B. Achenbach)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접근들은 철학의 주체, 객체, 목적,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이론으로서의 철학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리하여 이들은 철학의 주체를 철학전문가 집단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체의 독점성과 이들이 활동하는 장소를 상아탑으로 제한하는 공간의 편협성을 지닌 이론철학과는 달리 일상 속에서의 일상인에 의한 철학으로서 철학실천의 재발견을 통해서 철학의 존재 이유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 강원대학교

철학과 삶의 관계에서 철학이 지니고 있는 중의적 위상을 파르마콘(pharmakon)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철학의 역사에 있어서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의 역학관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2장에서는 실천으로서의 철학을 강조한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상징하고자 하는 ‘작은 철학(small philosophy)’과 이에 반해 이론철학을 발전시킨 플라톤의 철학을 ‘큰 철학(big philosophy)’으로 구분하여, 전자 철학의 독으로서 후자 철학의 역기능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철학의 다섯 가지 독들(Poisons)을 철학의 주체, 대상, 목적, 그리고 방법의 맹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3장에서는 작은 철학의 죽음이라는 사건의 모티브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이와 같은 작은 철학의 짧은 삶과 이른 죽음이라는 현상을 소크라테스에 대한 플라톤의 다섯 가지 역설들, 즉 말의 문자화, 소크라테스의 이중 모방, 분만 시키는 자의 낳는 자로의 전도, 문자와 세계의 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철학자의 탄생과 작은 철학자의 죽음이라는 역설을 통하여 해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실천적 접근을 통하여 철학이라는 개념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철학의 역할을 환기하여 봄으로써 철학의 존재의미를 삶의 관점에서 되짚어 보고자 한다. 이것은 철학이 철학을 통해 철학에게 행하는 철학의 자기인식이자 자기배려로서 결국 철학이 삶 속에서 병리적인 역할이 아니라 건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철학의 자기 건강검진이자 자기 예방접종이며 나아가 자기치료의 실천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1. 문제 제기

1.1. 철학의 독¹⁾에 대한 삶의 물음

사람들은 대부분 높은 강단 위에서 가르침을 늘어놓거나 텍스트를 바탕으로 강의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일상생활에서 부단히 실천되는 철학으로, 그 실천 방식은 그 철학 자체와 동일하다. (……)소크라테스는 연단에 올라가 청중들에게 설교하지 않았다. 그는 스승의 자리에 앉지도 않았다. 토론 시간이나 제자들과의 산책 시간들을 정해놓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때때로 제자들과 농담하면서 철학을 했다. 술을 마시면서, 전쟁터에서, 아고라에서 제자들과 어울리면서, 나아가 감옥에 끌려가고 독배를 들이키면서도 그는 철학을 했다. 소크라테스는 어떠한 시공간에서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일상의 삶이 철학의 기회를 제공한다. 는 것을 보여준 최초의 인물이다.²⁾

오늘날 철학의 고질적인 병폐를 이미 고대에 선취하면서 이러한 철학

-
- 1) ‘독’과 ‘약’이라는 표현은 플라톤의 *Phaedrus*(274b-276a)에서 말과 문자의 사용을 두고 벌어지는 테우트와 타무스의 논쟁에서 상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플라톤은 이 논쟁 속에서 지혜와 상기의 확장을 돕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언어적 매체 자체를 독과 약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독약과 묘약이라는 양가적 사용이 가능한 *pharmakon*이라는 용어를 플라톤은 이 대화록의 230d, 268c, 270b, 274e에서는 묘약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274e와 275a에서는 타무스가 주장하는 기억과 지혜의 묘약으로서 파르마콘의 이면에 있는 기억과 지혜의 독으로서 파르마콘, 즉 문자를 기억이 아닌 상기의 묘약이자 지혜의 진상이 아닌 겉모양에 대한 묘약임을 말함으로써 그것이 동시에 지니고 있는 독약의 기능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독과 약의 수사적 표현으로서 파르마콘 개념은 데리다에 의해서 플라톤의 현전의 형이상학과 음성중심주의를 해체하는 전략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Derrida (1968), ‘La Pharmacie de Platon’, *La Dissémination*.
 - 2) Hadot는 플라투르크의 철학자 상에 대한 언급을 주목함으로써 철학사에서 망각되어 오던 또 다른 철학자 상을 환기시키고 있다. Plutarque, *Si la politique est l'affaire des vieillards*, 26, 796d. Hadot (2008), 56-57쪽 재인용.

이 귀감으로 삼아야 할 철학자로서 소크라테스 철학의 현장을 2세기 초에 이미 플라투르크는 이처럼 역설하였다. 철학이나 철학자의 위상에 대한 이와 같은 환기는 오늘날 철학을 통하여 치료와 상담의 가능성을 논함에 있어서 선결하여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상담이나 치료의 새로운 영역에서는 철학 자체가 지니고 있는 삶(das Leben)과의 실천적 연관성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을 지배했던 다양한 철학적 패러다임들에 대한 검토 속에서 수행되어졌던 니체의 “신의 죽음”에 대한 선언과 더불어 그 후로 “저자의 죽음”을 비롯하여 “주체의 죽음”이나 “인간의 죽음”³⁾ 그리고 그것의 중심축을 이루는 “형이상학의 죽음”과 더불어 “철학의 종언”과 같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선언들이 이어졌다. 이처럼 죽음의 서사를 구사하는 포스트모던 철학은 무엇보다도 ‘죽음’의 철학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그렇다면 철학의 영토에서 발생한 차갑고도 처절한 ‘죽음 에피스테메의 탄생’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삶의 에피스테메의 죽음’이 아닐까? 신의 죽음을 통하여 철학의 죽음이라는 에피스테메를 처음으로 선언한 니체에 의한 죽음 에피스테메의 배후에는 바로 삶(das Leben)에 대한 관심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듯이 형이상학의 죽음으로 대표될 수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죽음 에피스테메는 죽은 삶의 에피스테메의 회복에의 요청을 의미한다.⁴⁾

이와 같은 죽음의 선언들이 단지 구호의 차원에 그쳤는지 아니면 삶을

3) 푸코는 칸트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철학적 사유를 근대의 발명품인 “인간학(L' Anthropologie)”이라는 에피스테메에서 발견하고, 나아가 이 학문의 대상이자 주체였던 ‘인간’이라는 개념의 죽음, 즉 “인간의 종말(la fin de l' homme)”의 운명에 대하여 “철학적 웃음(un rire philosophique)”으로 답하고 있다. Foucault (2012). 468쪽, 523쪽.

4) “ [.....] , — die Wissenschaft unter der Optik des Künstlers zu sehn, die Kunst aber unter der des Lebens……” Nietzsche (1872), 14쪽. 니체의 이 문구는 형이상학을 기점으로 하는 이론 중심의 ‘학문’에 쇠기를 박으면서 일체의 학문을 예술가의 눈으로, ‘예술’을 다시 ‘삶’의 눈으로 봄으로써 삶이라는 개념을 학문과 예술의 상위에 위치시키는 삶 철학자로서 니체의 위상 정립과 더불어 철학의 대전제의 전환을 이루는 기념비적인 선언이다.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데까지 이르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바로 위태로운 삶을 연명하고 있는 현대의 관점에 있어서 시급한 과제이다. 그 죽음들 자체는 과연 철저했으며, 그 목적으로서 삶은 회복되었는가? 그 많은 철학 개념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삶은 호전되기는 커녕 악화되고 있으니, 저 물음에 대한 대답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과연 삶의 이율배반적 현상인 허무주의(Nihilism)와 염세주의(Pessimism) 그리고 그것의 극단적 형식으로서 자살과 같은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에 대해 철학은 얼마나 결백한가? 그리고 최근 포스트모던 철학이 행한 죽음의 에피스테메에서 누락된 것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바로 철학의 맹점이자 철학 자신의 소도(蘇塗)를 찾는 일이 될 것이다.

철학의 자기 검증에서 제외된 저 맹점을 찾기 위해서 먼저 살펴봐야 할 곳은 삶의 현장이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 각인되어 있는 개념들(concepts), 즉 철학적 유전자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이 삶을 건강하게 하는지 아니면 병들게 하는지를 검토해봄으로써 철학적 유전자의 정체를 밝혀보는 일이다. 이는 결국 삶에 대한 철학이나 철학자의 연관 관계를 철학 내적으로 검토해 보는 일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재적 성찰은 삶의 병리적 현상들에 대한 철학의 연루 여부를 검토하는 일이다. 이는 삶의 유형을 결정하는 철학적 유전자가 삶의 독인지 약인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일이자 이 독이 삶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시기를 검토하는 일이다. 논자는 이와 같은 삶의 역설적 현상들이 출현하는 분기점을 바로 아테네인들에 의한 소크라테스의 사형 선고로 인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⁵⁾ 왜냐하면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작은 사건은 장차 서구지성사의 흐름에 있어서 놀라운 특이점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특이점을 기점으로 하여 철학자들의 유배, 즉 시장과 거리에서 아카데미, 즉 상아

5)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애지자(철학자)라는 새로운 존재양식의 출현에 과정에서 발생 하는 이와 같은 난산 과정은 장차 철학의 삶과 더불어 삶의 철학의 비극적 운명을 예고하고 있다.

탐 안으로의 추방이자 망명이자 유배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방금 시작한 ‘삶으로서 철학’의 주체, 객체, 목적, 방법이 ‘학으로서 철학’으로의 전면적인 궤도수정을 하기 시작했다.⁶⁾

소크라테스의 육체적 죽음의 원인은 ‘독(poison)’이다. 플라톤의 대화편 *Phaedo*에서 묘사되어 있듯이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온몸이 점차적으로 마비됨으로써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 독살은 단지 소크라테스의 독살이기도 하였지만 방금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한 어떤 철학의 죽음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이 독살은 어떤 철학의 독살이자 이 철학이 추구하고자 하였던 어떤 삶의 독살이기도 할 것이다.

이 모티브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과제는 마땅히 철학 스스로에 의한 철학의 검토이자, 철학자 스스로에 의한 철학자의 검토로서 철학의 내재적 자기 검토이다. 이와 같은 내재적 자기 검토는 소크라테스의 법정 변론을 담고 있는 *Apology*에서 소크라테스 자신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언급하고 있듯이 등에(gadfly)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잠자는 말(horse)이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만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중적 자기 성찰은 불가피하다. 그 이유는 철학에 의한 철학의 비판은 결국 철학 자신의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이다. 철학의 내재적 자기 성찰은 철학의 지속적인 성숙과 삶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철학 자신의 대전제이다.

1.2. 삶 철학의 오래된 죽음과 이론 철학의 오래된 삶

6)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기점으로 기존의 소피스트들의 개별적인 지식 전수나 철학자들의 개별적인 산파 활동이 집단화되는 동시에 활동 장소 또한 일반인들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며 내용 또한 점점 더 이론화되기 시작한다. 시장의 철학이 학술 기관 안으로 이전되는 이와 같은 현상은 플라톤 이외에도 소크라테스의 다른 제자들인 안티스테네스, 메가라의 에우클레이데스, 키레네의 아리스티포스 그리고 이소크라테스와 같은 인물들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Hadot (2008), 79쪽 참조 이와 같은 현상은 삶으로부터 철학의 유희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철학의 내재적 검토의 출발은 철학 자체의 맹점에 대한 물음, 즉 자신의 존재이유에 대한 기억과 망각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자기 인식의 문제이자 자기 정당성에 대한 물음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철학은 자신을 인식해야 하는가? 물론 이때 자기인식 자체가 철학의 목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식을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듯이 철학도 인식 자체가 목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모든 활동의 중심에 삶이 있듯이 철학의 자기인식 활동도 자신의 목적으로서 삶을 둘 것이며, 철학의 자기인식 또한 삶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마땅할 것이다.

놀랍게도, 이미 푸코(Michel Foucault)가 환기시켰듯이, “너 자신을 알라.(gnothi seauton)”라는 소크라테스 철학의 제1강령은 자기인식의 철학적 위상이란 그 자체로 완결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배려(epimeleia heautou)”와의 결합 속에서 온전해지는 것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철학의 자기인식의 목적은 자기배려이며⁷⁾, 자기 배려는 곧 자신의 삶의 배려를 의미한다.⁸⁾ 따라서 자기인식은 철학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삶의 관점에서 실천적으로 검토하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저 지독한 모던과 포스트모던 철학 사이의 철학적 고뇌와 실천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

7) 자기인식과 자기배려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논자의 다음 연구에서 다루었다. 김선희 (2008). 127-130쪽.

8) Foucault (2007). 푸코의 *L'Herméneutique du Sujet*는 자기인식 중심의 철학을 자기배려로 확장시키는 동시에 이론으로서의 철학을 삶의 배려로 전환시킴으로써 철학의 발생 지점을 새롭게 조명한 대표적인 사상가라고 할 수 있다. 철학의 목적을 자기인식에서 자기배려로 전환하는 이와 같은 푸코의 파격적 발상은 니체에 있어서 시도된 학문에서 삶으로의 저 전환과 맥을 같이 한다. 푸코의 이와 같은 노선에 대한 주목은 독일에서 일찍이 슈미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연구되었다. Schmid (1991), *Denken und Existenz bei Michel Foucault Herausgegeben von Wilhelm Schmid*.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8), *Philosophie der Lebenskunst: Eine Grundlegung*, Frankfurt am Main: Suhrkamp; (2000), *Auf der Suche nach einer neuen Lebenskunst: Die Frage nach dem Grund und die Neubegründung der Ethik bei Foucault*. Frankfurt am Main: Suhrkamp; (2007), *Mit sich selbst befreundet sein: Von der Lebenskunst im Umgang mit sich selbst*. Frankfurt am Main: Suhrkamp.

되는 삶의 병리적 현상들의 가속화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새삼스럽게 실천적으로 삶의 관점에서 ‘과연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다시 던져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철학의 주체와 대상과 방법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와 같은 철학의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물음에 맞춰 스스로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실천적 물음을 통해서 철학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해오던 철학을 삶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주지하다시피 니체를 기점으로 푸코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조명되었으며, 최근 철학 상담의 영역에 있어서는 철학을 이론(Theoria) 이외에 프락시스(Praxis)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독일의 철학 실천가인 아헨바흐(Gerd B. Achenbach)에 의해서 시작되었다.⁹⁾ 이와 같은 접근들은 철학의 주체, 객체, 목적,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이론으로서의 철학의 한계를 검토한다. 그리하여 철학의 주체를 철학전문가 집단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체의 독점성과 이들이 활동하는 장소를 상아탑으로 제한하는 공간의 편협성을 지닌 이론철학과는 달리 일상 속에서 일상인에 의한 철학으로서 철학 실천의 재발견을 통해서 철학의 존재 이유를 재구성한다. 이와 같은 철학의 재구성을 통해 시도되는 삶에 있어서 철학의 자기 전환에의 시도는 자신의 예비적 형태를 철학의 발생 지점인 고대 그리스 철학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 때 수행되는 철학의 존재이유에 대한 재구성은 단지 이론으로서의 철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형이상학적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처절한 몸부림에 의해 것이다. 염세주의와 비관주의 그리고 심지어는 쉽게 비관주의로 경도되는 맹목적 낙관주의와 같은 악성바이러스가 삶의 구석구석 퍼져있는 이 병리적 현실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철학자들을 위한 철학이 아니라 삶을 위한 철학, 삶의

9) Achenbach (1987). Achenbach는 1981년에 상아탑 안의 Theorie로서 철학에 이의를 제기하고 Praxis로서 철학을 역설함으로써 “Philosophical Praxis”라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켰다. 이는 최근에 철학의 새로운 존재양식을 보여주는 철학상담(Philosophical Counseling)이나 철학치료(Philosophical Therapy) 그리고 임상철학(Clinical Philosophy)과 같은 분야를 탄생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가혹한 운명 속에서 곳곳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것도 가능하면 덜 비참하게 살아가기 위한 절박한 요청으로서의 철학, 마치 ‘생계형철학’과도 같다. 고통으로 상처받은 삶을 위로하고 치유할 그리고 예방할 최소한의 철학으로서 생계형철학의 탄생을 위해서는 기존의 철학의 존재이유에 대한 실천적 재검토와 더불어 재정립이 요청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 가장 근접한 최근의 연구는 푸코나 아헨바흐뿐만 아니라 아도(Pierre Hadot)의 연구에서도 본격적으로 진척되어지고 있다.¹⁰⁾ 특히 고대 그리스 철학을 기존의 독법과는 다른 틀로서 읽어내고 있는 그는 철학의 고전적인 모습을 “삶의 양식(the way of life)”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함으로써 기존의 이론 중심의 철학, 철학자 중심의 철학, 인식 중심의 철학에 대한 대안적 담론을 예비하고 있다.¹¹⁾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철학을 삶으로부터 유리시킨 요인에 대한 검토의 당위성이 드러난다. 철학은 과연 인간의 생계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생존이 문제시되는 생계형 철학이라면, 우리 일상인들의 과제는 바로 현존하는 현실을 향해 나가는 것이다.¹²⁾ 그리고 이 현실과 맞닿아 있는 철학의 지점들을 검토하는 일은 철학의 최종보루와도 같았던 철학의 해체적 종언 속에서도 여전히 거론되지 않고 건재하고 있는 것을 검토하는 일이다. 그것은 바로 철학자, 바로 우리 철학자 자신의 위상이 아니겠는가?

본고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철학과 삶의 관계에서 철학이 지니고 있는 중의적 위상을 파르마콘(pharmakon)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이론으로서의 철학과 실천으로서의 철학의 역학관계를 그 분기점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2장에서는 실천으로서의 철학을 강조한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상징하고자 하는 ‘작은 철학(small philosophy)’과 이에 반해 이론

10) Hadot (2008), 18-57쪽.

11) Hadot (2005), 164-176쪽.

12) Hadot (2008), 78쪽. 철학의 대상으로서 실존의 현장성에 대한 강조는 결국 철학의 원전으로서 대가의 문헌이 아니라 실존이 생존하는 세계, 즉 지금, 여기에 대한 성찰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다.

철학을 발전시킨 플라톤의 철학을 ‘큰 철학(big philosophy)’으로 구분하여, 전자 철학의 독으로서 후자 철학의 역기능을 살펴본다. 이는 철학의 독들(Poisons)을 철학의 주체, 대상, 목적, 그리고 방법의 맹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3장에서는 작은 철학의 죽음이라는 사건의 모티브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이와 같은 작은 철학의 짧은 삶과 이른 죽음이라는 현상을 소크라테스에 대한 플라톤의 다섯 가지 역설들(paradoxes), 즉 말의 문자화, 소크라테스의 이중 모방, 분만 시키는 자의 낳는 자로의 전도, 문자와 세계의 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철학자의 탄생과 작은 철학자의 죽음이라는 역설을 통하여 해부하고자 한다.

철학의 맹점, 곧 철학자의 철학하기의 치명적인 독은 바로 철학을 임신하고 출산하는 철학 주체의 특권화이다. 이는 철학을 철학자의 독점물로, 그리고 대중은 소비자로 물러나게 함으로써 삶의 현장에 철학의 부재와 더불어 철학인의 부재를 초래한다. 큰 철학이 작은 철학, 즉 철학 중심에 삶의 부재를, 그리고 삶의 중심에 철학의 부재를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데에 주범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이 글의 내재적 성찰의 출발점이다. 이를 통하여 논자는 철학과 철학자라는 개념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삶에 있어서 이들의 실천적 역할을 환기하여 봄으로써 철학의 존재의미를 삶의 관점에서 되짚어 보고자 한다. 이것은 철학이 철학을 통해 철학에게 행하는 철학의 자기인식이자 자기배려로서 결국 철학이 삶 속에서 병리적인 역할이 아니라 건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철학의 자기 건강검진이자 자기 예방접종이며 나아가 자기치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2. ‘작은 철학’¹³⁾의 독으로서 ‘큰 철학’¹⁴⁾의 역기능

철학은 지금 존재하는가? 철학자란 누구인가?¹⁵⁾ 철학자가 존재하는 방식은 어떠한가? 우선 이 철학자라는 거대한 범주를 철학의 대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쉽게 지식인 개념¹⁶⁾과 연관하여 살펴볼 수 있다. 왜냐

- 13) ‘작은 철학(small philosophy)’이라는 개념을 논자는 서양철학 전통에 있어서 삶 중심의 철학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다. 일명 ‘개똥철학’으로 비하되어 온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철학은 주체에 있어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반인들을, 그 대상에 있어서는 일상사를,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철학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철학을 행한 상징적인 철학자로 소크라테스를 두었다. 세부적인 논의는 일단 3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며 본격적인 논의는 후속 논문에서 논의될 것이다.
- 14) ‘큰 철학(big philosophy)’은 서양철학 전통에 있어서 지배적인 흐름인 학문으로서 철학을 강조하는 이론 중심의 철학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다. 일명 ‘강단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철학은 주체에 있어서는 전문 철학자들을, 그리고 대상에 있어서는 철학적 텍스트들을,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기존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강의와 저술을 중심으로 한다. 이와 같은 철학을 행한 상징적인 철학자는 플라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분법적 개념은 철학적 전통을 양분화 하여 양자택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양자 사이의 불균형적인 발전에 균형을 찾아보기 위해서이다.
- 15) Philosopher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피타고라스(Pythagoras)라고 한다. 이는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Diogenes Laertius)의 “Lives of Eminent Philosophers”에서 발견된다. “인생은 축제와도 같다. 어떤 사람들은 시합을 하기 위해서 축제에 참석하나,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하러 참석한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구경하는 사람들(theatai)로서 참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도 노예와 같은 사람들은 명성과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되지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philosopher)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된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2005), 191-192쪽.
- 16) 사르트르가 『지식인을 위한 변명』(2007)에서 지식인의 위상에 대해 비판적 물음을 던진 이래로 최근에 프란체스코 파올로 아도르노 (2006)는 「지식인의 임무: 소크라테스적 모델」(프레데리크 그로 외 (2006), 59-60쪽)에서 ‘특수 전문 영역의 지식인’과 ‘보편적 지식인’ 사이의 차이를 주목한다. 여기서 그는 전체 사회 의식의 대변자로서 진실과 정의를 전파하는 지식인을 보편적인 좌파 지식인으로 서술하는 푸코의 입장을 따라간다. 나아가 이러한 지식인의 모습이 이론과 실천의 또 다른 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특수 전문 영역의 지식인에 의해서 대체되었음을 지적한다. 즉 특수 전문 영역의 지식인이란 지엽적인 비평에 자신의 지식을 한정하지 않고 대신 불공정과 거짓을 겨냥하며 사회에 대한 보편적 의견을 제시

하면 철학(φιλοσοφία)이 지에의 사랑, 즉 애지라면, 지식인이 문제 삼고 있는 ‘지’와 애지자가 사랑하는 ‘지’라는 대상 사이의 공통점과 더불어 차이점 또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철학자라는 개념에서 사랑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본다면, 철학자와 지식인 사이의 차이 또한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후자가 대상과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거리두기라면, 전자의 경우는 사랑이라고 하는 보다 주관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상정하기 때문이다. 현대 철학이 과학화되고 실증화되면서 강조하는 객관성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은 결과적으로 철학의 활동방식이자 실천방식으로서 사랑이 지닌 의미를 퇴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철학은 점점 더 창백하면서도 위생적인 개념으로 전이됨으로써 더 강한 소독약과 방부제를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철학의 주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는 관찰자와 대물렌즈 아래에 놓인 물체 간의 관계처럼 객관화어 온기를 잃어갔다. 이러한 현상은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지식 전수의 과정에서도 전자는 단지 차가운 지식의 전달자로서 그리고 후자는 피전달자로서 자리하게 된다. 철학 활동에 있어서 사랑의 결핍은 철학자의 선천적인 가임력을 점점 약화시킴으로서 마침내는 불임 철학자를 양산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¹⁷⁾ 설혹 사랑 없는 철학자의 활동이 가능하여 가임력을 지니고 있다고 치더라도, 이는 결국 분만에 이르기까지 유산이나 난산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혹여 우여곡절 끝에 출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양육의 미래는 여전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플라톤에 대화편들 속에서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주목되는 영혼에 의한

하는 보편적 지식인과는 달리 자신의 지식을 수단으로 매우 한정된 문제에 대해 이론적으로 반응하는 지식인이다.

- 17) Plato (1961c). 200b-212d. 철학에 있어서 이와 같은 생식 패러다임의 사용은 *Symposium*에서 이루어지는 소크라테스의 Eros론에서 명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그는 에로스 개념을 기점으로 불멸성, 육체적 생식과 정신적 생식의 구분,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아주 획기적인 개념 군을 사용하고 철학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영혼의 씨뿌림’¹⁸⁾ 활동으로서 철학의 양식은 그 전제인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제대로 준비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결정체는 개념들 (concepts)이자 이들로 이루어져 있는 지식(knowledge)이다. 개념들 자체는 가임성과 다산성을 바탕으로 지식의 수태와 출산 그리고 양육에 이르는 철학적 생애의 단초를 이룬다. 이와 같은 철학의 방식으로 영혼에 의한 영혼의 씨뿌림의 기초적 방식은 바로 잠재적으로 이미 산파적 기능을 담고 있는 논박술(elenchus)이자 변증술(dialectica)이다. 이를 통하여 지식의 씨앗이 생겨나고, 임신이 되고, 출산이 되며, 양육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철학의 씨앗의 출산과 양육의 최종 목표는 좋은 삶이 될 것이다.

플라톤의 대화편들 속에는 지에 대한 사랑으로서 철학 그리고 이 사랑의 구현 방식인 산파술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랑은 철학의 가임성과 다산성을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철학 활동은 어느 순간부터 사랑 없는, 그리하여 마치 컴퓨터 계산처럼 단지 논리적이고 기계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지식을 생산하지는 않았는가? 철학 활동에 있어서 사랑의 결핍은 애지자로서 철학자가 지니는 지식인으로부터의 변별성을 약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철학자의 역할 또한 산파의 역할이 아니라 그 자신이 산모의 역할까지 자처함으로써 그 자신 진리의 생산자이자 고지자로서의 자처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철학의 모습은 철학활동에 있어서 형이상학을 추구하는 본질중심주의와 이것의 쌍생아인 로고스중심주의(Logocentrism)의 출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부터 이미 강력한 매력을 발산하였던 이 로고스에 대한 집착의 결산인 로고스중심주

18) “영혼의 씨뿌림”(Hadot (2008), 77-78쪽 참조) 개념은 위의 생식 패러다임의 일환으로서 *Phaedrus*에서도 (Plato (1961b), 276-277a)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철학의 생식 패러다임은 다산성, 출산, 영혼의 씨뿌리기, 종자 보관하기, 종자를 지닌 말과 문자, 그리고 이와 같은 종자들을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영혼들 사이의 교접, 그것의 일차적 수단으로서 살아있는 말과 같은 에피스테메들을 통하여 철학과 삶의 유기적 관계를 설파한다.

의는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세계를 로고스로 환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나 선분의 비유는 존재 세계의 이원화와 동시에 인식 활동의 이원화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관에 있어서 현실의 부정이나 이상세계에 대한 갈망 그리고 인식에 있어서 감각이나 신념에 대한 과도한 부정은 결국 냉철한 이성 중심주의를 양산하였다. 이성중심주의 전통은 철학 활동에 있어서 또한 자신이 지녀왔던 풍요로운 철학적 가임성과 다산성뿐만 아니라 양육의 힘에 있어서 또한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한다. 바로 사랑 없는 철학활동은 마치 인공수정이나 복제 기술처럼 이 불우한 운명의 극복을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로부터 출산된 앎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핏기 없는 창백한 미라나 로봇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창백한 이성적 논리의 지배하에 놓인 철학활동은 불완전해 보이는 세계와 그 속에서 부조리해 보이는 삶을 자신의 동일성의 밖으로 배제시킨다. 철학에 있어서의 이성중심주의의 양산은 삶 보다 더 강력한 삶의 통치 원리로서 로고스를 예찬함으로써 이것의 배후의 사랑의 힘과 변화무쌍한 현실 세계, 그리고 인간의 몸이나 감성은 타자화되어 마침내는 존재의 영토에서 추방되게 된다. 이제 철학 활동은 더 이상 사랑이라는 매개에 의해서가 아니라 로고스와 이성의 엄격한 통제 하에 있는 냉정을 덕목으로 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출생한 앎은 더 이상 세계나 삶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대신에 정합적 본능에 충실하여 진리를 추구하게 된다. 이로써 앎은 변화하는 세계와 부단히 조우하는 실천적 지식을 외면한 채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진리로 선포되어진 동어 반복적 거대서사가 되어 단지 부단한 자기 복제와 주석달기만을 허용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철학은 이론 철학으로 전환하게 되고, 이 속에서 철학자의 중심 역할은 철학이 아니라 경전 베끼기나 주석달기로 전도된다. 왜 철학자들은 더 이상 스스로 철학하지 않는가? 철학과 삶의 생생한 관계를 추구하는 삶 철학이 철학의 유전자를 복제하고 인공 수정하는 협의적인 이론철학으로만 몰락해가고 있는가? 삶으로부터 학문의 유리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철학의 초자아(super-ego of philosophy)’로의 플라톤의 이론철학의 등극은 삶 철학의 몰락의 전형적인 징후인 것이다.¹⁹⁾ 이로 인해 이후의 상아탑의 철학자들은 스스로 세워놓은 철학의 초자아에 대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사로잡힘으로써 스스로뿐만 아니라 일상인

19) 이제 이와 같은 플라톤 왕국의 이론철학이 만들어낸 문자 세계와 이로 인하여 출현할 새로운 초자아의 출현은 사르트르의 저서전인 *Les Mots*에서 구체적인 표본을 드러낸다. 사르트르는 사물의 세계와 다른 또 하나의 세계로서 les mots (‘말’로 번역되어 있으나 말과 문자를 구분하여 보는 본 논문의 논의에서 볼 때는 의미상으로는 오히려 문자 영역에 가까운 ‘낱말들’이라는 번역어가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원어를 그대로 쓴다.) 세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Les Mots*에서 그의 친부인 잔 바스티스의 이른 죽음을 그의 삶에 자유를 준 커다란 사건으로 묘사하면서 “나에게는 초자아가 없다.”고 그리고 자신을 “고아”로 묘사한다. Sartre (2011). 262쪽.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인 할아버지, 이미 “자기 아들의 피로 배를 불렀던” 그의 제2의 아버지 또한 아버지 노릇에 더 이상 재미를 느끼지 못하였음을 고지하면서 사르트르는 자신이 “죽은 사람의 아들”임을 다행한 일로 묘사하고 있다. Sartre (2011). 265쪽. 그러나 이와 같은 그의 자신의 묘사는 곧 반전을 맞이한다. 즉 그는 그의 개인사적인 육신의 계보에 있어서는 초자아로부터의 자유를, 그리하여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한다. 하지만 그의 양피-외디푸스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그의 정체성의 계보는 어떠한가? 그의 정체성의 형성을 보여주는 다음의 묘사를 보자: “나에게는 시골 소년들의 무성한 추억도, 즐거웠던 탈선도 없었다. 나는 흙을 파헤쳐 본 일이 한 번도 없었고, 새둥지를 찾으러 다닌 일도 없었다. 식물채집을 한 일도 없고 날짐승들에게 돌을 던진 일도 없다. 그러나 책들이 나의 날짐승이었고, 새집이었고, 가축이었고, 외양간이었고, 전원이었다. 서재 그것이 거울에 비친 이 세상이었다.” Sartre (2011). 265쪽. 아버지의 이른 죽음이 비워 놓은 그의 초자아의 자리에 책들이 대신 자리하게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의 초자아는 결국 책들이 된다. les mots가 그의 아버지가 된 그에게는 “파리의 ‘볼로뉴 숲 동물원’에서 보는 원숭이들은 원숭이답지 못하고, 뤽상부르그 공원에서 보는 사람들은 사람답지 못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고백하길 “본디 플라톤학파인 나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물로 향해 가고 있었다. 나는 사물에서보다 관념에서 더 많은 현실을 보고 있었다.” Sartre (2011). 286쪽. 이와 같은 현상의 이유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의 묘사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 “왜냐하면 관념이 먼저 나에게 주어졌고, 그 관념은 마치 사물처럼 주어졌기 때문이다.” Sartre (2011). 286쪽. 이미 1887년에 니체에 의해서 *Zur Genealogie der Moral*에서 선취되어졌던 말과 사물의 역전된 관계는 다시 1964년에 les mots에 대한 한 인간 사르트르의 경험을 통해서 재현되어졌고 결국 2년 후인 1966년에 푸코에 의해서 *Les Mots et Les Choses*라는 제목의 연구에서 고고학적으로 탐구되어진다.

들조차도 범접할 수 없는 성지로 철학의 영토를 폐쇄하게 된다. 이 순간은 작은 철학의 죽음과 큰 철학의 탄생의 분기점이다.

철학이라는 학문이 더 이상 삶을 배려하지 않고 일상과 일상인이 더 이상 철학의 대상도 주체도 될 수 없게 될 때, 삶 중심의 작은 철학(small philosophy)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로써 철학은 더 이상 삶의 묘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약이 되게 된다. 철학이라는 상아탑 안에서 제조된 앎, 즉 이론 중심의 큰 철학은 일상의 삶에 닿지 못하는 타자성(otherness)을, 보편적 진리라는 미명하에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익명성(anonymity)을, 어떤 개별적 인칭도 철학의 주체로서의 자리가 거부됨으로서 무인칭성(impersonality)을, 그리고 그 이론 철학은 우리의 삶의 현장의 식민지화(colonization)를 초래하게 된다. 큰 철학이란 전문 철학자들의 도움 없이는 일상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독할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상형문자가 되어 버린다. 이로 인하여 삶의 현장에서 일상인이 해독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철학의 재출현이 요청된다. 이는 어쩔 삶을 위한, 삶에 의한, 삶의 철학에 대한 권리 주장의 양식으로서 ‘작은 철학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 for small philosophy)’이 될 것이다.

3. 작은 철학의 죽음

이와 같은 큰 철학에 의한 작은 철학의 죽음 그리고 이로 인한 철학의 변형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기점으로 기반이 다져지고 가속화되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 주지하다시피 초기의 대화편들에 등장한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폐쇄적 독점자는 아니었다. 오히려 저 플라투타르크의 인용에서 보여주듯이 이와 반대되는 개방된 철학자 상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철학자가 철학의 주체가 되고, 개별 실존은 철학의 객체 또는 소비자로서의 운명을 감수하게 된 기점은 언제일까?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전, 즉 애지자로서의

소크라테스의 철학 활동을 환기해보는 것이 철학과 삶의 의심스러운 관계를 살펴보는 데에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후에 서서히 그 모양을 갖추기 시작한 전문 철학인으로서 철학자의 탄생은 역설적이게도 철학의 주체로서 인간 실존, 즉 ‘철학인’의 죽음을 의미한다. 철학의 주체의 협소화와 전도는 철학의 주체, 자신의 영혼을 보살피는 활동의 자기 주체성을 지닌 인간의 치명적 죽음과 철학인으로서 인간의 탄생에 있어서의 난산 과정을 드러낸다. 이 난산의 과정에 필요한 오늘날의 철학적 산파술은 철학의 주체에 대한 철학 자체의 내재적 자기 성찰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철학의 대상이 이론으로 제한됨으로써 철학의 대상은 더 이상 삶이나 세계가 아니라 문자로 된 이론적 삶과 세계로 전이된다. 이로써 삶은 비좁은 철학 텍스트 속에 감금된다. 이에 따라 철학 주체의 맹점, 즉 삶을 살고 있는 실천인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이론을 논하는 이론인에 의한 철학 주체의 맹점이 발생한다. 이것의 연쇄적 작용에 따라서 철학 대상의 맹점, 즉 생성 소멸하는 실천적 대상이 아니라 불변하는 이론적 대상이 철학의 대상으로 자리하게 된다. 그리하여 철학의 주체와 대상은 삶으로부터 점점 더 소원하게 되어 마침내 이 양자 간의 타자성은 익명성, 무인칭성, 식민지화로 악화일로로 걷게 된다.

철학의 주체와 대상의 타자화 속에서 망각된 것은 철학의 목적으로서 자기배려, 즉 자신의 삶의 성찰이자 삶의 양식으로서의 철학, 즉 작은 철학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적 작업 이후에 삶의 회복을 위하여 고대 그리스 지성사를 천착하기 시작한 푸코는 그곳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플라톤의 대화록 원전 해독에 있어서 새로운 독법을 발견한다. 이는 바로 자기인식에 매몰된 서구지성사의 플라톤 수용에 있어서 은폐되어졌던 것은 바로 자기배려의 기획이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것이 플라톤의 것인가 아니면 소크라테스의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는다.

지금까지 지식 획득을 최우선으로 하는 형이상학의 인식론적 전통에 있어서 철학의 최고 파트너로서 자기인식 대신에 자기배려를 주목한 푸

코는 이와 같은 철학의 발생을 플라톤의 스승이자 그의 수많은 대화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에서 찾는다. 푸코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기초적으로, 시원적으로, 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돌보고, 배려하고, 등한시하지 말 것을 선동한 최초의 인물”이 바로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자기인식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²⁰⁾ 푸코는 “소크라테스는 자기배려의 인간이고 그렇게 남아있을 것”임을 강조한다.²¹⁾

푸코가 주목한 이와 같은 자기배려의 기획자로서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우리는 플라톤의 *Apology*에서 소크라테스가 고소인들과 배심원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당연히 수치감을 느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비난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 같은 삶을 영위한 것에 대해 대단히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 방식을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임무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를 돌보고 가꾸는 자기배려를 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자기배려는 결코 자기인식에 머무른 수준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의 실천을 요하고 행위를 유발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²²⁾

- 20) 푸코는 소크라테스가 단지 자기인식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자기배려의 대가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Apology*의 29d, 31-31c, 36b-c 등의 세 개의 텍스트와 세 구절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Foucault (2001), 44쪽.
- 21) 푸코는 “또 후에 나온 일련의 텍스트들—스토아주의자들, 견유학과, 특히 에픽테토스의 텍스트—내에서 소크라테스는 항상 본질적·근본적으로 길거리에서 젊은이들을 잡아 세우고 “여러분 자신을 배려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 한다. 이에 대한 더욱 직접적인 증거를 추후에 플라톤의 위서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는 *Alcibiades*를 통해서 제시해나간다. 그는 “*epimeleia heautou*(자기 배려와 거기에 연관된 규율)란 소크라테스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헬레니즘·로마 문화의 전반에 걸친 철학적 태도를 특징짓는 항구적 원리”였음을 역설한다. Foucault (2001), 49쪽. 나아가 그는 이와 같은 자기배려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Foucault (2001), 69쪽.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기배려가 왜 자기인식에 가려져버렸던 것일까? 이에 대한 푸코의 답변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Foucault (2001), 55-63쪽.
- 22) 그렇다고 이와 같은 자기인식과 자기배려에서 문제되고 있는 자기가 단지 자기 중심주의, 나르시시즘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기 개념은 자기의 영혼 개념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삶을 의미하며, 이 삶은

4. 작은 철학의 독으로서 플라톤의 다섯 가지 역설들

그렇다면 철학의 시원에서 작은 철학의 짧은 삶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것은 소크라테스의 육체적 죽음의 원인이었던 저 독에 버금가는 그의 정신적 죽음이자 철학적 죽음의 원인으로서의 독을 살펴보는 일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철학의 독은 바로 소크라테스에 대한 플라톤의 독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플라톤이 왜 문제인가? 그것은 단적으로 보자면, 저 철학의 독의 맹아를 제공하였기에, 시장에서의 철학이 아카데미아로 들어가 버렸기에,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방금 시작된 삶 철학이 형이상학과 이론철학으로 전도되었기 때문이다.²³⁾ 따라서 그는 소크라테스의 정신적·철학적 독살에 대해 유죄가 아니겠는가? 그는 큰 철학의 탄생의 일등공신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마땅할 것이지만 막 철학적 사유의 시원에서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어렵게 싹을 틔운 작은 철학의 좋은 양식을 종결시켰다는 점에서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플라톤으로 인하여 너 자신을 알 것을 천명한 소크라테스의 자기인식의 시도, 그리고 이와 결합된 자기배려를 기점으로 하는 삶 철학의 새로운 양식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없었거나 뽑혀버리게 되었다.²⁴⁾ 이 근절 과정을 상징적으로

타자와의 관계의 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반-나르시시즘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의 문답에서 인식되고 배려되는 것은 단지 개인 자신만의 독단적이거나 이기적인 삶이 아님은 자명한 사실이다.

- 23) Havelock은 초기 그리스인의 사유가 전적으로 형이상학에 몰입했다거나 또는 그러한 목적에 적합한 어휘를 구사할 수 있었다고 보는 전반적인 전제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정신구조는 어떤 것이었으며 표현하려고 한 것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물음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Havelock (2011), 11쪽.
- 24)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관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소크라테스의 문제’, 즉 역사적 소크라테스와 등장인물로서 소크라테스의 관계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Dorion에 따르면 소크라테스의 문제에 대한 논란은 모든 면에서 잘못된 문제라고 주장한다. Dorion (2009), 30-42쪽. 본 연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

보여주는 플라톤의 역설을 논자는 *Phaedrus*를 중심으로 다음 다섯 가지로 드러내고자 한다.

4.1. 소크라테스에 대한 플라톤의 역설 1: 말의 문자화

플라톤의 대화록은 그 자체가 말의 문자화라는 양식에 종속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플라톤 자신이 *Phaedrus*에서 문자가 앎과의 관계에서 지니고 있는 보조적 역할, 즉 안 사람이 안 것을 다시 기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자의 요약 기능을 제한하는 동시에 문자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알게 해주는 요약으로서 쓰일 수 없음을 경고하는 논리와 모순되는 부분이다. 플라톤은 문자의 이와 같은 한계를 소크라테스의 말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파이드로스, 글쓰기에는 뭔가 이런 기이한 점이 있으니, 그것은 사실 그림 그리기와 똑 같네. 거기서 생겨난 것들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보이지만, 자네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무겁게 침묵한다네. (글로 쓰인) 말들도 똑 같지. 자네에게는 그것들이 마치 무언가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글에 담긴 것들 가운데 무언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을 던지면 글은 언제나 똑 같이 하나만을 가리킨다네. 일단 글로 쓰이고 나면, 모든 말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주변과 그 말이 전혀 먹히지 않는 사람들 주변을 똑 같이 맴돌면서, 말을 걸어야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려 알지 못하네. 잘못된 대우를 받고 부당하게 비판을 당하면 언제나 아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혼자서는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자신을 도울 힘도 없기 때문이라네.²⁵⁾

과연 이와 같은 문자와 글로 쓰인 말들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플라톤의 비법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자신의 문자에 대한 변론은 어디에 있던 말인가? 그의 문자야말로 바로 소크라테스의 저 지적의 산증인이

장인물로서 소크라테스와 대화록의 저자인 플라톤의 관계를 일정 부분 독립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5) Plato (1961b). 275d-e.

아니겠는가? 단적으로 플라톤은 스승의 금기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제자가 되었고, 철학자의 터부를 파기함으로써 철학자가 되었다. 문자를 기억과 지혜의 독으로 보았던 소크라테스의 원칙에 반하여, 즉 자신의 음성 중심주의의 입장에 반하여 문자를 통하여 스스로 철학의 묘약이 되고자 하였다.²⁶⁾

그의 대화체의 글쓰기 자체의 놀라운 기여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의 기록은 대화가 지니고 있는 고유성을 부분적으로 실현할 뿐 대화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의 대화의 철학적 가치는 당면 문제를 화두로 하여 묻는 자와 답하는 자 사이의 현전성과 즉흥성이 자기인식과 자기배려의 현장성을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말, 특히 대화가 문자나 글에 비해 갖고 있는 고유한 강점이다.

이 강점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플라톤의 운명은 소크라테스의 죽음, 즉 스승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스승과 대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화록을 통하여 대화의 현장성을 대안적으로 문자화함으로써 차선의 전달 양식을 선택한 그의 과감한 선택을 통하여 그는 소크라테스의 유일한 장자가 되었고, 철학자들의 아버지가 되었다.²⁷⁾ 말에서 문자로의 전환기에 플라톤은 과거의 왕인 말의 권력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의 왕인 문자의 권력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과거 ‘철학의 장자권’과 더불어 미래 ‘철학의 정통성’을 동시에 거머쥔으로써 하나의 거대한 철학가문을 이루었다.²⁸⁾ 또한 플라톤 자신은 스승의 죽음으로

26) 만일 플라톤의 *Apology*를 제외한 모든 대화편이 플라톤의 문학작품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이러한 대립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대립이 아니라 플라톤과 플라톤의 대립에 된다.

27) 문자에 의한 말의 전도는 플라톤의 독창적인 작품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한다. ‘쓴다는 것’이 초래하는 사고의 구조변화와 그리스 철학의 시작이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해명하고자 한 Havelock의 주저 *Preface to Plato*에서 그는 호메로스에서 플라톤에 이르는 동안, 온갖 정보를 알파벳 문자로 표기할 수 있게 되면서 저장 방법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정보를 저장하는 인간의 주요기관은 듣는 귀에서 보는 눈으로 바뀌었음을 주목하고 있다. Havelock (2011), 7쪽.

28)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소크라테스는 지식의 매체와 관련하여 과거 지향적이

인하여 ‘철학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자유로워졌으나 철학가의 후손들이 되기 위해서 필독해야 하는 그의 문자들은 플라톤 철학가문의 후손들에게 철학적 오이디푸스-콤플렉스를 유산으로 남겼다.

4.2. 소크라테스에 대한 플라톤의 역설 2: 소크라테스의 이중 모방

첫 번째 패러독스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은 이 역설을 결과적으로 폭로하게 하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전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신중한 독자로 하여금 그를 단순한 기록자 이상으로 평가하게 한다. 대화라는 양식의 문자를 통하여 문자의 힘을 말의 힘과 섞어놓는 은밀한 기획은 동시에 스승의 생각을 제자의 생각과 애매모호하게 섞어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기록자와 저자의 경계를 흐려놓는 반역적 모방을 수행한다.²⁹⁾ 이로써 그의 이름은 기록자가 아니라 저자의 자리에 위치하는 조용하면서도 교묘한 반란에 성공을 거두게 된다.

대화편의 저자로 플라톤을 자리매김하는 것은 결국 대화(Dialogue)라고 하는 양식이 플라톤의 독창적인 양식인 것으로 간주하게 한다. 이미 일반적으로 그의 저술의 특징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대화라는 방법이나 그것이 지니고 있는 ‘철학의 현장성’이나 ‘대화로서의 철학’과 같은 특징³⁰⁾이 과연 플라톤의 독창적인 성과인지를 밝히는 문제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엄밀히 보자면, 그것은 소크라테스의 철학하기를 플라톤이 모방(mimesis)한 것이므로 대화라는 양식을 플라톤의 독자적이며 독창적인 것으로 서술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³¹⁾ 따라서 플라톤의 대

었고 오히려 플라톤이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서 문자와 말의 역전에서 득실이 무엇인지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있어서 지식 매체에 대한 설득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즉 타무스 왕이 문자의 독성으로 제시한 것이 약의 효능을 갖게 된 근거에 대한 탐구, 이와 더불어 문체의 문자의 독의 제거 여부에 대한 검토 그리고 그가 주장한 말의 전성시대가 저물어가는 이유와 더불어 그곳에서의 치명적인 상실의 여부에 대한 탐구의 결과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29) 이는 일명 ‘소크라테스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Dorion (2009), 30-42쪽.

30) 남경희 (2006), 55-63쪽.

화편들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구분하는 시도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성을 지닐 수 있겠지만, 그 문체(style)에 있어서는 분명히 소크라테스의 모방이자 말을 글로 만든 모방이라는 이중적 모방에 해당되는 것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플라톤의 양식은 소크라테스의 이중적 미메시스이다.

그러나 그는 이 과감한 이중적 모방을 통하여 자신을 모방자가 아니라 창조자로, 부친 살해자로서의 오명이 아니라 그 자신이 아버지가 되는 역설적 성과를 이루었다. 그렇다면 철학의 아들의 부친 살해는 그 자신이 철학의 아버지가 됨으로써 완전범죄를 성사시켰는가? 심지어는 현전 중심의 말, 로고스중심주의를 해체시키고자 한 데리다조차도 플라톤의 문자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해체를 수행하는 역설을 야기하지 않았던가?

결과적으로 그는 대화록 형식의 문자를 통하여 스승 소크라테스의 말의 모방자를 넘어서 그 자신 철학자가 됨으로써 소크라테스는 명목상의 아버지로서만 남게 된다. 아테네인들이 독배를 통하여 소크라테스의 육체적 죽음을 선언하였다면, 저 과감한 기획을 통하여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정신적·철학적 죽음을 선언한 셈이었고, 이를 통해 그는 소크라테스 철학의 모방자가 아니라 그 자신이 철학의 정초자가 되었다. 그는 문자의 강력한 힘을 통하여 '철학의 초자아(super ego of philosophy)'가 된 것이다.

4.3. 소크라테스에 대한 플라톤의 역설 3: 분만 시키는 자의 낳는 자로의 전도

“신은 나에게 분만시키는 일을 강요했다. 그러나 낳는 일은 허락하지 않았다.”³²⁾ 소크라테스에 대한 플라톤의 패러독스이자 극적인 반전은 바

31) 그의 독창성은 단지 말로 된 대화를 글로 된 대화로 구현하였다는 데서 소크라테스의 대화와의 변별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32) Plato (1961d). 150c. 철학의 제1과제이자 철학자의 덕목인 무지의 자각과 반대되는 것은 *Apology*에서 소크라테스가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 무지이자 이중의 무지이다. 즉 무지의 자각이 자신의 무지를 스스로 깨닫는 것이라면 이중의 무지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함으로써 실제로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

로 철학자의 과제와 관련된다. 영혼 불멸론과 이데아론의 탄생 그리고 상기론의 강화는 결국 이데아계와 영혼에 대한 갈망을 통하여 현상계와 신체에 대한 부정을 수반하는 동시에 철학자의 위상을 지자로 승격시킴으로써 플라톤 철학의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진다. 즉 스스로 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무지한 인간들과 유일하게 참된 지식을 소지한 것으로 믿었던 신들 사이의 중간자(inter-esse)로서 철학자의 위상³³⁾ 철회를 선언하게 된다. 무지의 자각은 philosophy, 즉 지혜에 대한 사랑의 시작점이다. 무지에 대한 자각, 즉 자기 인식만이 인간으로 하여금 철학하게 한다. 지자로서의 자처나 진리의 선포가 아니라 무지의 자각을 통한 무지의 대상에 대한 철학하기를 통하여 비로소 인간은 자기 자신의 영혼과 삶을 배려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극적인 차이는 무지의 자각을 자신의 덕목으로 하는 철학자의 고유한 과제를 삶을 분만시키는 일로 보는지 아니면 낳는 일까지로 보는지에 따른 입장 차이이다. 소크라테스가 전자를 철학자의 사명으로 알았다면 플라톤은 후자를 철학자의 사명으로 알았다. 결국 문답을 통하여 철학자는 대답 자가 아니라 묻는 자로 남아야 한다는 소크라테스의 제1명제를 플라톤은 전복시키고 그 자신에게 낳는 일을 허락함으로써 진리를 지닌 자, 물음에 답하는 자임을 자처하게 된다.³⁴⁾

진리를 낳는 자로서의 철학자의 위상은 결국 자신의 삶에 특권을 부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삶의 기록물로서 문자를 경전화시키는 결과를 야

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무지가 악의 근원인 것은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천만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Dorion (2009), 60쪽 참조. 따라서 소크라테스의 그 후의 행적들은 결국 이 위험천만한 경우로부터 아테네 젊은이들을 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방법이 바로 주지하다시피 소크라테스적 문답법이다. 이와 같은 근거에서 볼 때 역시 소크라테스의 무지에 대한 자각의 과정으로서 자기인식은 결국 자기배려, 즉 그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기배려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33) Dorion (2009), 62쪽. 이 순간은 근대의 인식론에서 절정에 달했던 철학자의 오만(hybris), 즉 이성이라는 독재자가 탄생하는 지점이다.

34) 김선희 외 (2011), 170쪽.

기한다. 진리의 도구와 관련하여 ‘말을 긍정’하고 ‘글을 부정’하는 문자화의 거부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서양 지성사는 플라톤의 글을 소크라테스의 말의 대리물, 또는 동일물로 믿도록 하며, 심지어는 플라톤 자신으로 믿게 하는 데까지 이른다. 데리다가 행한 철학의 왕으로서 플라톤의 단두(斷頭) 이전에 이미 플라톤 자신에 의해서 이 철학적 단두는 시행되어졌던 것이다.³⁵⁾ 플라톤은 이 작은 철학의 왕의 단두를 통한 새로운 왕위 등극을 마련한 셈이다.

따라서 이 왕위계승의 정통성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글들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통성에 대한 물음의 준거적 내용은 소크라테스 철학의 목적과 방법을 어느 정도 계승하고 있는가에 있을 것이다. 그는 과연 대화 중심의 소크라테스의 철학하기의 방법론에 얼마나 충실한가? 그리고 그의 대화록을 통한 철학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한 대답의 관건은 물음을 지닌 자가 자신의 영혼을 보살필 수 있도록 철학자가 묻는 자로 머무는지 아니면 답을 주는 자로 나아가는지에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의 후기의 저작들은 이데아론을 통하여 묻는 자가 답하는 자로 월권행위를 함으로써 원래 답을 해야 하는 자는 답을 수용하는 자로 물러난다. 이는 결국 소크라테스의 방법인 문답법의 진가를 퇴색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삶의 아포리아는 물음을 지닌 자의 자기배려의 출발점이자 묻는 자가 멈추어서야 할 종착점이다. 묻는 자로서의 철학적 산과가 종착점을 관통하는 철학자의 월권행위는 오히려 아포리아의 출현 지점이 지닌 철학의 진정한 탄생의 순간을 무효화시키는 행위이다. 그리하여 철학의 제1기획인 자기에 의한 자기 배려 프로젝트는 후퇴하게 된다.

35) 니체를 필두로 하여 포스트모더니즘에서 강박적으로 시도했던 해체 작업들은 서양철학의 형이상학에 대한 전면전이자 그 중심에 위치한 플라톤에 대한 전면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4.4. 소크라테스에 대한 플라톤의 역설 4: 문자와 세계의 관계 전도

주지하다시피 플라톤의 대화록들은 ‘말을 담고자 한 글’이라는 역설적 양식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가 철학의 원전이자 원형이 된다.³⁶⁾ 따라서 세계에 관한 진리를 담고 있는 문자의 중요성, 그리고 문자 중의 문자인 이데아(idea)의 고안 그리고 이데아의 담지체로서 이론 철학의 중심을 차지하는 개념의 절대적 위상은 문자가 지닐 미래의 권력을 예견하게 한다. 즉 무지의 자각을 중시하는 철학 속에서는 새로운 앎을 제공해주는 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의 영혼이 진리를 지니고 있으며 단지 망각에 빠진 상태로 있음을 설파하는 이데아론에 있어서는 아남네시스(anamnesis)가 높히 평가되며, 이에 따라서 이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상기하는 일이다. 이와 같이 변화된 상황에서 이제 망각한 지혜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문자는 지식의 요약으로 자리하게 된다.

말의 대리물로서 문자는 자신의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사물의 본질, 즉 이데아를 담고 있다는 기발한 논리를 소유함으로써 무소불위의 형이상학적 절대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로써 철학의 원전인 세계의 자리에 문자들, 즉 플라톤의 대화록들이 자리하게 됨으로써 세계

36) 그러나 플라톤 자신은 이와 같은 말과 문자의 역전된 관계를 의식하고 있지 않았다. 파르마콘으로서의 말과 문자의 위상이 진리에 대한 플라톤의 입장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데리다는 간과하였다. 데리다의 음성중심주의에 대한 플라톤 비판의 논리로서는 플라톤의 문자사용을 설명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지점은 특히 Havelock이 방대한 양의 플라톤 서설을 논함에 있어서 논의의 중심에 두고 있는 구송에서 문자로의 이행과정을 논할 때 분명히 드러난다. Havelock (2011), 63-71쪽 참조. 호메로스가 구송을 통하여 모든 기억할만한 것들을 전하였다면, 구송에서 문자로의 이동의 격변기의 말미에 있었던 플라톤은 문자를 통하여 그렇게 하였다. 플라톤이 구송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단지 매체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송문화가 지니고 있는 독으로서의 역할에 근거한다. 그것은 플라톤이 구송매체를 대표하는 시를 부정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관계되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플라톤은 문자를 통하여 구송문화를 해체시킨 철학자이다. 이와 같은 문자중심주의자로서 플라톤의 모습은 플라톤을 음성중심주의자로 보는 데리다 논점의 여백을 드러낸다.

와 문자의 관계가 역전된다. 화이트헤드(A. N. Whitehead)가 *Process and Reality*에서 지적하였듯이 서양철학은 플라톤의 각주로³⁷⁾ 전락된다.

세계나 삶에 대한 직접적인 탐구의 현장, 그리고 그 생생한 경험들을 대리하여 철학하기의 대상은 더 이상 삶이 아니라 저 문자이거나 이 문자를 전하는 말이 되며, 그 주체 또한 저 세계에 대한 원전을 자처하는 경전 그리고 이를 독점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제한된다. 그리하여 세계에 대한 철학자들의 앎의 전달 매체로서의 말이나 글은 실존적 인간이 세계를 읽는 참고서의 역할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원전으로 탈바꿈한다. 결국 세계를 가리키는 손가락 자체가 그 세계를 움켜잡아버리기에 이른다. 세계를 점령한 말과 글의 제국에서 세계에 대한 앎은 저 말과 글의 감옥에 쉽게 봉인된다. 언어와 세계의 전도를 통해서 글 속의 세상, 말 속의 세상이 이제 세상 자체가 됨으로써 실존적 인간은 이제 철학의 원전인 세계나 삶을 읽으려고 하는 대신에 책을 읽는다.³⁸⁾ 세계는 망각되고 그 자리에 언어가 지배하게 된다. 이는 바로 세계의 언어화이자 삶의 개념화이다.³⁹⁾

4.5. 소크라테스에 대한 플라톤의 역설 5: 큰 철학자의 탄생과 작은 철학자의 죽음

앎을 생산하는 것은 세계에 대한 실천적(practical) 경험이 아니라 회색

37) Whitehead (1979), 39쪽 참조. 이처럼 서양철학이 플라톤의 각주라면, 서양철학의 원전으로서 플라톤은 다름 아닌 세계의 각주일 것이다. 그것도 매우 놀라운 각주일 것이다.

38) Sartre (1864). 마치 사르트르가 세계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아니라 글을 읽음으로써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간 데서 알 수 있듯이 문자 또한 단지 세계의 대리물이나 보충물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세계라고까지 할 수 있다.

39) 언어와 세계의 관계 전도를 힘에의 의지(Wille zur Macht)의 관점에서 재구성함으로써 이들의 역학 관계를 앎에의 의지가 아닌 힘에의 의지로 파악한 철학자가 바로 니체다. 특히 니체는 *Zur Genealogie der Moral*에서 언어와 사물간의 긴장 관계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도덕적 담론들의 발생과 삶의 역학관계에 대한 계보학적 분석을 통하여 면밀하게 드러내고 있다.

의 말과 글이 된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언어의 자기 꼬리 물기인 동어 반복적 재생산의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앎의 생산을 대신하는 앎의 복제이다. 그리고 그 앎의 복제자 역할은 이론철학자가 맡게 된다. 세계와 삶을 인식함으로써 세계와 삶을 배려하는 자이어야 하는 철학자는 이제 문자화된 철학의 문자들이나 말들을 재생산하거나 복제하는 철학의 노동자 역할을 떠맡게 되는 것이다.

사상의 가임성은 약화되고 불임성은 강화되는 이 황무지에 유일한 가임자로서 플라톤의 이론이 등극하게 된다. 그리하여 철학적 담론들의 초자아로서 플라톤 철학의 유전자 복제가 전면화 됨으로써 이론가로서의 큰 철학자가 철학에 있어서 지배적 위상을 차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철학의 우생학적 논리 속에서는 개별적 상황에서 개별적 주체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작은 철학은 아카데미 안에서나 밖에서나 도태되게 된다. 이 도태는 바로 작은 철학자의 죽음을 의미한다. 큰 철학자들은 초자아인 플라톤의 유전인자를 지니지 않은 자를 식별하여 배제함으로써 일상의 작은 철학과 철학자들은 철학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다. 거대한 이론철학의 제국주의에서 작은 철학은 철학의 왕국으로의 진입 기회를 원천 봉쇄당할 운명을 맞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철학의 복원을 위하여 우리는 아도가 그의 저서의 마지막 인용문으로 사용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다음과 같은 예리한 지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짧은 두 문장은 큰 철학이 추구 하였던 큰 세계에 대한 과도한 욕망 대신에 작은 철학이 추구해야 할 작은 대상들과 작은 실천을 오히려 예의주시하고 있다.

플라톤의 국가를 기대하지 말고 그저 작은 것 하나가 진보하거나 그것을 죽히 여기라. 그리고 그러한 작은 것에서 비롯된 것은 결코 그리 작은 것이 아님을 생각하라.⁴⁰⁾

40) Hadot, (2008), 374쪽 재인용.

5. 맺음말: 플라톤 중독 & 파르마콘으로서 플라톤

주지하다시피 이 거대한 이론철학으로서 큰 철학이 누리는 권위에 파격적인 도전장을 던진 대표적인 철학자가 바로 니체다. 그는 플라톤의 형이상학을 해체할 강력한 망치와 폭발물을 제작함으로써 저 철학의 초자아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해체의 작업은 오늘날에는 그의 후예들인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철학의 초자아에 대한 해체 또한 그 자신의 맹점을 지니고 있다. 이 해체는 파르마콘으로서 철학이 갖는 중의성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도는 플라톤 철학을 단지 독으로서 설정하는 반면에, 자신이 사용하는 철학을 단지 약으로 맹신함으로써 그 자신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초자아로 변질될 수 있음을 망각한다. 뿐만 아니라 독과 약의 또 다른 변인으로서 철학 사용자의 위상이 지니고 있는 결정적 단서를 놓치고 만다.

말도 문자도 그 자체로는 독이자 약일 수 있는 파르마콘이다. 플라톤이 *Politeia*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말조차도 참다운 것이 있고 거짓된 것이 있다.⁴¹⁾ 따라서 문자뿐만 아니라 말도 약으로 뿐만 아니라 독으로도 쓰일 수 있게 된다. 타무스 왕은 말의 독약을, 토이트 신은 말의 묘약을 강조하였다. 이 둘 각자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은 양가성에 대한 주목이자 활용이다. 오늘날 우리는 말 자체나 문자 자체에 대한 일면적 평가 이전에 이들의 양면성을 동시에 주목함으로써 이들의 중의성에 대한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우리는 파르마콘으로서의 말이나 문자 그리고 철학이 지니는 묘약과 독약에 대한 중의성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플라톤 또한 어떻게 보자면, 즉 소크라테스의 말과 문자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에서 자유롭게 보자면, 소크라테스를 모방한 동시에 그를 넘어선 철학자이다. 인류사의 놀라운 발명품으로서 ‘철학’, 놀라운 활동 양식

41) Plato (1961b). 276e.

으로서 ‘사유하기’의 과정을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하는 대화편에서 경이롭게 그려내고 있다. 그는 시인의 기록과는 다른 방식의 기록⁴²⁾, 즉 당시에 지배했던 영웅들 이야기나 신들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들 이야기, 즉 인간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놀라운 연출력을 과시하였다. 배우에 대한 안목과 놀라운 대본 제작은 오롯이 플라톤 자신의 선택으로서 그의 독창성과 천재성을 드러내는 지점이다.

이처럼 소크라테스라는 우산을 접고서 플라톤을 보자면, 그는 소크라테스를 파르마콘으로 사용한 탁월한 제자이다. 플라톤은 토이트 신의 발명품인 문자의 강점과 타무스왕의 권력 매체인 말의 강점, 이 양자 모두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약점을 피하고자 함으로써 소크라테스가 이원적으로 구분해 놓은 말과 글의 이원적 처방을 파기하고 오히려 파르마콘 관점에서 재구성해낸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의 극치가 그의 제자와의 이와 같은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플라톤의 독성은 일정 부분 사용자들의 탓이기도 하다. 플라톤은 말과 문자의 독성을 자기 방식으로 해독하고 약으로 사용하고자 한 철학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자의 의도가 독자의 독법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 플라톤 또한 우리에게서 그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물론 이 또한 *Phaedrus*에서 타무스왕의 입을 통해서 지적되고 있듯이 제작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몫이 됨을 피할 수 없다.⁴³⁾ 독인가 약인가는 단지 플라톤 자신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용자에게 의해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플라톤 사용자이자 복용자로서 우리 현대인은 이미 플라톤 과잉복용에 의해 ‘플라톤 중독증’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플라톤 자체가 독이나 약이나? 라는 양자택일적 물음을 갖고 검토할 것이 아니라 ‘그와 우리와의 관계’를 통하여 그가 우리의 삶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를 검토해봐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플라톤을 파르마콘의 관점에서 검토해봄으로써 플라톤이라

42) Havelock (2011), 7-14쪽.

43) Plato (1961b). 274e.

는 파르마콘의 새로운 복용법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과연 우리의 삶이 ‘플라톤 중독’에서 해독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논자의 다음 연구의 중심물음이 될 이 물음에 대한 탐구는 큰 철학의 비대화에 견주어 너무 협소화되어버린 작은 철학을 주목함으로써 시작될 것이다. 이는 인문학적 전통에 있어서도 ‘큰 인문학(big humanities)’이 지니고 있는 강점을 수용하면서도 ‘작은 인문학(small humanities)’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작업과 축을 같이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이들의 상위 영역으로서 ‘큰 학문(big science)’과 ‘작은 학문(small science)’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현대의 병리적인 현상들을 작은 것에서 자생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작은 행복(small happiness)’과 ‘작은 삶(small life)’을 시도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선희 외, 2011. 『마음, 철학으로 치료한다: 철학치료학 시론』, 서울: 지와 사랑.
- 김선희. 2008. 「철학치유를 위한 서언: 철학치유의 세 축으로서 자기인식, 자기배려, 대화」, 『철학연구』, 제107집, 대한철학회 편: 117-139.
- 남경희. 2006. 『플라톤: 서양철학의 기원과 토대』, 서울: 아카넷.
- 박규철. 2003. 『역사적 소크라테스와 증장인물 소크라테스』, 서울: 동과서.
- Achenbach, G. B. 1987. *Philosophische Praxis*. Köln: Verlag für Philosophie Jürgen Dinter.
- Derrida, J. 1981, 'La Pharmacie de Platon', *La Dissémination*, Johnson, B.(trans.). London: Athlone Press.
- Dorion, Louis-André. 2006. *Socrate: Que sais-je*, 김유석 옮김. 소크라테스. 서울:이학사.
- Hadot, P. 2005. *Philosophie als Lebensform: Antike und moderne Exerzitien der Weisheit*. Berlin: Verlag Mathias Gatzka.
- Hadot, P. 2008. *Qu'est-ce que la Philosophie antique*. 이세진 역, 『고대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이레.
- Havelock, E. A. 2011. *Preface to Plato*. 이명훈 역, 『플라톤 서설: 구송에 서 기록으로 고대 그리스의 미디어 혁명』. 서울: 글항아리.
- Foucault, M. 1988. *Technology of the Self, A Seminar with Michel Foucault*. 이희원 역, 『자기의 테크놀로지』. 서울: 동문선.
- Foucault, M. 2007. *L'Herméneutique du Sujet :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81-1982*. 심세광 역, 『주체의 해석학: 1981-1982,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의 강의』. 서울: 동문선.
- Foucault, M. 2012. *Les Mots et les Choses: Une Archéologie des Sciences Humaines*, 이규현 역, 『말과 사물』. 서울: 민음사.
- Gros, F. 2006. *Foucault et la philosophie antique*. 심세광 역. 『미셸 푸코

- 진실의 용기』, 서울: 길.
- Habermas, J. 1994. *Der Philosophische Diskurs der Moderne: Zwölf Vorlesungen*. 이진우 역, 서울: 문예출판사.
- 아도르노, 프란체스코 파올로. 2006. 「지식인의 임무: 소크라테스적 모델 . 『미셸 푸코 진실의 용기』. 프레데리크 그로 외 지음. 심세광 & 박은영 & 박규현 옮김. 서울: 도서출판길.
- Kierkegaard. 2007. *Philosophiske Smuler*. 표재명 역. 『철학의 부스러기』.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 Nietzsche. F. W. 2001. *Also Sprach Zarathustra*. 정동호 역.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서울: 책세상.
- Nietzsche. F. W. 2002. *Zur Genealogie der Moral*. 김정현 역. 『도덕의 계보』. 서울: 책세상.
- Nietzsche. F. W. 2005. *Die Geburt der Tragödie*. 이진우 역. 『비극의 탄생』. 서울: 책세상.
- Presocratic Philosophers, 2005. *The Fragments of Presocratic Philosophers*. 김인곤 외 옮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서울: 아카넷.
- Plato. 1961a. *Apology*. in: *The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Including The Letters I*. Edith Hamilton and Huntington Cairns (ed.),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lato. 1961b. *Phaedrus*. in: *The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Including The Letters I*. Edith Hamilton and Huntington Cairns (ed.),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lato. 1961c. *Symposium*. in: *The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Including The Letters I*. Edith Hamilton and Huntington Cairns (ed.),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lato. 1961d. *Theaetetus*. in: *The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Including The Letters II*. Edith Hamilton and Huntington Cairns (ed.),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lato. 2004. *Phaedrus*, 조대호 역. 『파이드로스』. 서울: 문예출판사.
- Sartre, J. P. 2011. *Les Mots*. 이희영 역, 『말과 사물』. 서울: 동서문화사.
- Sartre, J. P. 2007. *Plaidoyer pour les Intellectuels*. 박정태 옮김, 『지식인을 위한 변명』, 서울:이학사
- Schmid, W. 1991. *Denken und Existenz bei Michel Foucault Herausgegeben von Wilhelm Schmid*. Frankfurt am Main: Suhrkamp;
- Schmid, W. 1998. *Philosophie der Lebenskunst: Eine Grundlegung*. Frankfurt am Main: Suhrkamp
- _____. 2000. *Auf der Suche nach einer neuen Lebenskunst: Die Frage nach dem Grund und die Neubegründung der Ethik bei Foucault*. Frankfurt am Main: Suhrkamp
- Schmid, W. 2007. *Mit sich selbst befreundet sein: Von der Lebenskunst im Umgang mit sich selbst*. Frankfurt am Main: Suhrkamp.
- Whitehead, A. N. 1979. *Process and Reality*, New York: Free Press.

**The short life of 'the small philosophy' and
the long life of 'the big philosophy':
Plato's 5 paradoxes as Pharmakon**

Kim, Sun-Hye (Kangwon National Univ.)

The chronic ills today's philosophy has taken already in the ancient times and the review of the philosophy of Socrates who has to be a model of this philosophy will be an assignment to be decided first in arguing the therapy and counseling through today's philosophy. Because the review of the connection with life which the philosophy itself has as a new area of such therapy and counseling is inevitable. In order to diagnose the acceleration of pathological phenomena of the life which lasts still even after the philosophical agony and practice between a horrid modern philosophy and postmodern philosophy, we should give a question practically again 'What is philosophy, indeed?'. Through such a practical question we shall be able to review the philosophy which has dominated us up to this time in the viewpoint of 'life'.

Such an attempt was spotlighted intensively by Foucault from the starting point of Nietzsche, and in the area of recent philosophical counseling it started from Achenbach, a German philosophical practitioner, who approached philosophy in the viewpoint of praxis besides theory. Such approaches reviews the subject, object, purpose and method of philosophy, and points out the limit of philosophy as a theory. Therefore, unlike the theoretical philosophy which has the independence of the subject restricting the subject of philosophy as the philosophy specialist group and the special bigotry restricting their

activity place as an ivory tower, in this thesis we cast light on the reason for being of philosophy through the rediscovery of the philosophical Practice as philosophy by a common man in the daily living.

In order to figure out an ambiguous phase which philosophy contains in the relation between philosophy and life, we intend to study the dynamics between theoretical philosophy and practical philosophy in the history of philosophy centered on the Pharmakon concept. For this work, first in Chapter 2, we are going to divide the philosophy into two categories, that is, ‘a small philosophy’ symbolizing Socrates’ philosophy which emphasized the philosophy as practice, in contrast ‘a big the philosophy’ of Plato’s philosophy which developed the theoretical philosophy, and survey the adverse effect of the latter philosophy as the poison of the former philosophy. Hereby we study 4 poisons of philosophy focused on the blind spot of the subject, object, purpose and method of the philosophy. In Chapter 3, we’ll review the motive of the event, the death of a small philosophy. And finally in Chapter 4, we plan to analyze the phenomenon of the short life and early death of this small philosophy through Plato’s 5 paradoxes on Socrates, that is, iteration of speech, Socrates’ dual imitation, shift from a person making childbirth into a person giving childbirth, shift of letter and world and finally the birth of a big philosopher and the death of a small philosopher.

Through this practical approach, we are going to recall the role of philosophy as well as review of the concept of philosophy, and retrace the meaning of the existence of philosophy. This is the self-awareness and self-care of philosophy that philosophy acts on philosophy through philosophy, and ultimately it will be the self-checkup and

self-vaccination so that philosophy may perform a healthful role in the life instead of a pathological role, further perform a practical role of self-therapy.

Key words: Life-Philosophy, Pharmakon, Big-Philosophy, Small-philosophy, Paradoxes of Plato

김선희 e-mail: schamier@kangwon.ac.kr

투 고 일	2013년 04월 15일
심 사 일	2013년 05월 01일
게재확정	2013년 05월 20일